

### 과테말라의 정치권 부패: 국가와 갱단조직의 특별한 ‘양상불’

정이나 HK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 주요 내용

- 과테말라는 “국가형 비리(Cooptación del Estado)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과테말라의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으로는 투명하지 않은 국정운영 시스템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해체되어 가는 사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치인의 지역구 공공시설 확충 등을 명목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해당 정치인들의 동의를 ‘매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과테말라는 “국가형 비리(Cooptación del Estado)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 혐의가 불거짐.

- 과테말라 정치권 부패는 이제 만연하다 못해 새삼스러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된 지 오래임.
  - 36년간의 오랜 내전이 끝나고 맺어진 1996년 평화협정은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과테말라 사회에 평화를 보장해 주는 시작이어야 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바람은 과테말라 사회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약 2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테말라는 “국가형 비리(Cooptación del Estado)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현재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과테말라는 다시 한 번 정치권 부패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는 형국임.
  - 과테말라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최초로 부패 스캔들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연속 2번을 사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우려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임.

## 2 원인과 분석

☒ 과테말라의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으로는 투명하지 않은 국정운영 시스템에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란 공권력을 일정 부분 독점한 집단으로 사회에 대한 필요한 수준의 ‘통제권’과 ‘지배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과테말라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가 기능의 범주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
  - 적어도 이미 정부는 과테말라 사회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일련의 사건들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벼랑으로 내몰린 과테말라 사회의 심각한 빈부 격차, 빈곤층과 더불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극빈층의 증가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분열”, 즉 해체되어 가는 사회 역시 부패를 부추기고 있음.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국제연구개발센터(약칭 IDRC\_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지원을 받아 다년간 연구된 결과가 보고됨.

- 해당 연구는 과테말라를 비롯한 3개국(온두라스, 콜롬비아, 니카라과)에서 벌어지는 조직범죄집단과 각국의 권력 엘리트들의 역동적인 '협업 체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임.<sup>1)</sup>
  - 동 보고서는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과테말라 서북부 지역인 우에우에떼낭고(Huehuetenango) 주(州)에서 '성업' 중인 조직범죄집단인 일명 "우이스타스(Huistas)"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대상, 그리고 지방 토착 지주 및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협조 아래 국경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이용한 세력의 확장과 관리 체계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음.
  - 우이스타스들의 조직범죄는 단순히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무기와 마약 밀거래, 인신매매, 갈취 등과 같은 비합법적인 활동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권력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세력이 성장하며 확장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 유엔 산하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약칭 CICIG)는 급기야 "RPEI(Redes Político Económicas Ilícitas 불법경제 정치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함.
    - RPEI의 구체적인 해석은, 정치권의 주요 요직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건설업과 같은 경제 이권을 독점하고,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
    - RPEI의 활동 중에는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엄격하게 범죄행위와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과테말라 시민단체인 GAM(Group de Apoyo Mutuo 상호지원연대)의 대표 마리오 폴란코(Mario Polanco) 또한 "과테말라 사회의 가장 큰 악이자 심각한 문제는 조직범죄집단인 갱단들이며, 특히 이들이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국가 비리와 부패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함.<sup>2)</sup>
    - 그리고 동시에 "과테말라 국가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교육, 직장 등), 이러한 갱단조직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함.<sup>3)</sup>
  - 과테말라 사회에서 조직적인 갱단들의 존재는 일반 국민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치안 상태로 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림.
    - 공원 빈터의 벤치는 이제 그 누구도 앉아서 쉴 수 없는 '장식'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함.
    -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사회진출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된 구조 내에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밟게 됨.
    - 이에, 모든 범죄조직의 운영 '규칙'에 따라 한번 가담한 평범한 직원들의 운명은 대부분 20살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1) <http://es.insightcrime.org/investigaciones/elites-y-crimen-organizado-en-guatemala-los-huistas>

2) <http://lahora.gt/polanco-crimen-organizado-coopto-al-estado-corrupcion-mayores-males-del-pais/>

3) 과테말라 일간지, Siglo 21 [2014년 9월 8일(월)일자]

- 과테말라 갱단조직의 권력형 비리와 유착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는, 한편으로는 국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테말라 사회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폭력의 주요 생산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 현재, 2014년 9월 과테말라 유력 일간지 중의 하나인 Siglo 21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과테말라를 지배하는 갱단조직은 크게 두 조직이라고 함
  - 그중 하나는 Mara 18(M-18)과 다른 하나는 Mara Salvatrucha(MS-13)로, 이 두 갱단조직은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미 전체를 포함 심지어 캐나다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었으며, 적어도 수천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됨.

그림 1. Mara 18 조직원들의 문신



자료 : taringa

그림 2. Mara Salvatrucha 조직원들의 문신



자료 : taringa

- 역사적으로 과테말라 사회는 소수 과두 엘리트 지배계급에 의해 국가 권력이 독점되어 옴.
- 인구의 절반이 넘는 마야 원주민들의 존재와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당시 경제구조와 맞물리며 국가 권력의 독점이 공고화되기 시작함.
  - 비생산적이고 모순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의 시도는 1944년부터 약 10년간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1954년 쿠데타에 의해 개혁정부는 전복되고 약 36년간의 내전이 시작됨.
  - 내전이 진행되는 시기 군부에 의해 주도된 국가 폭력은 정점에 달했으며, 과테말라 사회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와 사회의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음.
  - 그리고 1996년 비로소 오랜 시간의 내전을 마무리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테말라 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됨.
- 우선, 오랜 내전 기간 군부의 주도하에 국가는 과테말라 사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함.
  - 1996년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곧바로 국가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대신 국가의 공백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 온 갱단조직들에 의해 채워졌으며,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려는 그 어떤 정치인도 이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 게다가 평화협정 후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할당이 8%에서 10%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역으로 중앙 행정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낳음.
  -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지방의 유력 정치인과 토착 자본가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갱단 조직과의 유착 관계는 경제 이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적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었음.
  - 각 지역에서 ‘번성’하게 되는 정치세력은 4년마다 임기가 바뀌는 행정부와 적절한 ‘조율’과 ‘협상’을 통해 그들의 이권을 보장받는 내에서만 행정부의 권한을 허용함.

### 3      **전망과 시사점**

**☐ 정치인의 지역구 공공시설 확충 등을 명목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해당 정치인들의 동의를 ‘매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

- 현재 과테말라의 정치정당은 약 30여 개에 달하며, 집권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소수 정당의 합의나 동의를 필요할 경우, 해당 정치인의 지역구 공공시설 확충 등을 명목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해당 정치인들의 동의를 ‘매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이는 또다시 지역 정치인의 정치 자금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지역을 장악한 조직범죄 집단과의 양상불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임.
  - 이미 갱단조직의 존재는 단순히 폭력을 조장하는 불법적 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건설업자이자 기업인으로 둔갑하여 있는 것임.
  -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그리고 정부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중앙 정부는 공적 자금을 이용한 국가 인프라 구축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경우 민간 기업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입찰 특혜나 특정 정치인과 유착관계가 깊은 기업들이 깊숙이 관여하며, 경제 이권과 특혜를 둘러싼 부패 고리는 더욱 공고해짐.
  - 심지어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들이 만든 NGO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공적 자금 수령을 위한 매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바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과테말라의 정치권 부패를 단순히 도덕적 감수성이 결여된 양심 없는 소수 정치인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문제로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함.
  - 결코 몇몇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현직 대통령을 사임시키는 것으로 정치권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임.
- 결국 국가와 갱단조직의 양상블은 정치권 부패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과테말라 사회의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양산하는 사회적 분열과 해체는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어렵게 함.
- 비록 분열된 과테말라 사회가 이 모든 ‘악’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버린 지금, 어쩌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과테말라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암살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일지라도, 그들의 국가를 갱단조직이 아닌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과테말라 국민이고 그들의 행동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EMERiCs**

#### 출처

Insightcrime, La Hora, Siglo, Taringa